

## 日・호주 EPA/FTA, 2015년 초 발효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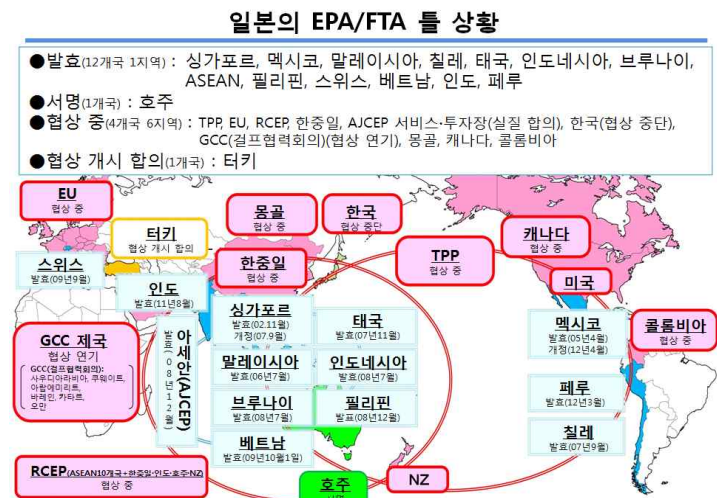
- 일본과 호주 간에서 EPA/FTA에 대한 서명이 진행, 일본은 14번째 국가와의 EPA/FTA를 체결
- 농업 대국과 처음으로 협정을 체결한 일본은 쌀이나 밀 등 곡물의 관세 삭감을 추진하지 못했지만, 쇠고기나 와인 등에서는 관세 철폐 또는 삭감을 실현

### □ 日·호주 EPA/FTA 체결

- 일본의 아베 총리는 7월 8일에 호주의 애벗 총리와 회담, 경제연계협정(EPA/FTA)에 서명

- 이것으로 일본이 체결한 EPA/FTA는 14건이고 日호주 EPA/FTA는 일본과 호주의 국내 절차를 거쳐 '15년 초에 발효될 예정

- 호주는 수입 상대국으로서는 중국, 미국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인 국가임으로 현재 일본이 체결한 2국간 무역협정에서는 최대 무역상대국



- 협정에 따르면 일본 측은 발효부터 10년 이내에 무역 품목의 88% 이상(금액 베이스로 93% 이상), 호주는 99% 이상의 수입 관세를 철폐

### □ 협정에 의한 효과

- 호주산의 와인에 대한 일본의 관세는 현재 15% 또는 1리터당 125엔 중 저렴한 것을 선택하고 있지만 이를 7년에 걸쳐 철폐할 예정

- 관세 철폐분을 반영시키면 호주산 와인의 판매가격이 약 10% 인하됨
- 호주산 쇠고기는 가공용이나 외식에서 사용하는 냉동쇠고기를 협정 발효 후 18년째에 19.5%, 일반소비자용의 냉장쇠고기를 15년째에 23.5%까지 단계적으로 삭감
- 관세가 23.5%까지 삭감되면 호주산 냉장쇠고기의 판매가격은 약 8~10% 인하될 전망
- 수입 소혀의 30%를 차지하는 호주산은 즉시 7.6%로 삭감되며 매입가격이 단순계산으로 1kg당 5% 인하될 가능성이 있음
- 현재 일본의 자동차업계는 호주에 대해 430억 엔의 관세를 지불하고 있지만 협정이 발효되면 중소형차에 부과되는 5%의 수입관세가 즉시 철폐되기 때문에 약 300억 엔의 부담이 삭감될 전망
- 호주는 이미 미국 자동차의 수입 관세를 철폐, 우리나라 자동차의 관세 철폐에도 합의하여 향후 수출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
- 日·호주 EPA/FTA에는 「일본 시장의 경쟁력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 호주의 원산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는 관점에서 재검토를 실시한다」는 항목이 추가됐음
- 이 조치에 따르면 만약 TPP 체결 시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보다 우대하는 경우 호주산에 대한 관세도 인하될 것임
- 거꾸로 TPP 협상이 지연되면 호주산 쇠고기의 경쟁자인 미국산 쇠고기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日호주 EPA/FTA를 성과로 내세우고 미국이 요구하는 쇠고기·돼지고기 관세 철폐에서 양보를 얻어낼 방침
- 경제 외의 분야도 포함한 협정인 EPA의 측면에서 日·호주 양국은 사람의 이동이나 지적재산의 보호, 제도의 운용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나 효율화를 약속, 투자 분야에서는 상대국 기업을 자국 기업 수준으로 처우하는 것 등을 합의
- 투자가와 국가 간의 분쟁해결 절차의 도입에 대해서는 호주 측이 난색을 보여 5년 이내에 다시 협의할 예정

## □ 시사점

- 日·호주 EPA/FTA는 일본이 농업대국과 체결한 첫 EPA로 그동안 국내농업보호를 위해 농산물 시장 개방에 소극적이었던 태도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임
  - 한편 일본국내의 축산업자를 배려하여 수입이 일정량이 넘은 경우 세율을 다시 38.5%로 하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(세이프가드)도 도입
  - 日·호주 EPA/FTA가 일본 농업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아직 예상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나라로서는 협정 체결에 의한 피해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
- 우리나라는 미국, EU, 그리고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 등 일본이 아직 체결하지 못한 국가들과의 협정이 많다는 점에서 무역 환경은 유리함
  - 한일 양국이 호주와 EPA/FTA를 체결한 것은 3개국을 포함하는 RCEP의 협상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예상
  - 동시에 TPP 협상도 타협을 위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협상 참가 여부에 대한 결정도 요구될 것임

## &lt;참고자료&gt;

닛케이신문(2014.4.8, 7.9), 마이니치신문(2014.7.8), 일본농업신문(2014.7.9)

## &lt; 日호주 EPA 주요 내용 &gt;

|        |            |  |
|--------|------------|--|
| 일본의 관세 | 와인         | 현행 15% 또는 1리터당 125엔<br>→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   |
|        | 쌀          | 관세 유지  |
|        | 밀          | 식량용 : 나중에 재검토<br>사료용 : 무세화   |
|        | 쇠고기        | 소혀, 횡격막, 간 : 현행 12.8% → 7.6%<br>냉동 쇠고기 : 현행 38.5% → 1년 후 30.5%<br>→ 17년 후에 19.5%로<br>냉장 쇠고기 : 현행 38.5% → 1년 후 32.5%<br>→ 14년 후에 23.5%로 |
|        | 돼지고기       | 차액관세제도 유지, 수량을 제한하여 고가격품의 관세를 50% 삭감   |
|        | 유제품        | 블루 치즈 : 현행 29.8% → 10년에 걸쳐 20% 삭감<br>내추럴 치즈 : 현행 29.8% → 관세 제로 범위를 확대<br>버터, 탈지분유 : 나중에 재검토  |
|        | 아이스크림      | 성분에 따라 현행 21%, 21.3%, 29.8% 등<br>→ 일정량에 한정하여 50% 삭감  |
|        | 남방참다랑어, 연어 | 현행 3.5% → 10년에 걸쳐 철폐   |
|        | 오렌지        | 여름 기간에 한정하여 철폐   |
|        | 설탕         | 일반 조당, 정제당은 나중에 재검토  |
| 호주의 관세 | 자동차        | 배기량 1500cc~3000cc의 중소형차 : 즉시 철폐<br>배기량 3000cc 이상 : 3년 이내에 철폐   |
|        | 자동차 부품     | 3년 이내에 철폐, 일부 즉시 철폐  |
|        | 기계, 가전     | 즉시 철폐  |
|        | 철강         | 5년 이내에 철폐  |
| 공통 분야  | 식량, 자원     | 안정 공급을 위해 수출을 제한하지 않는 노력을 규정   |
|        | 투자         | 최혜국대우(투자가 對 국가의 분쟁 해결을 재협의)  |
|        | 지적재산       | 차별 없이 보호, 운용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  |